

# 고흥 청정새우 특산품화 나선다

군,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과 1100억 투자협약...양식 전문가 300명 육성 경제 활성화·인구유입 기대



공영민(왼쪽) 고흥군수가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주)과 '친환경 양식새우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주)과 3년간 총 11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주) 관계자, 귀어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양식새우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주)은 3년간 총사업비 1100억을 투자해 양식·종묘장과 사료공장, 유통시설, 교육 및 연구센터, 양식기자재(모틀)생산시설, 사료공장 등 종묘부터 출하까지 원스톱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사업이 완료되면 연 1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산 청정새우의 특산품화를 추진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도기술 전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은 귀어인 300명을

새우양식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귀어인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수산업협회사법인은 바이오플랙 양식기술을 도입해 양식새우를 생산, 공급하는 수산양식 전문업체로 수도권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유통망 등에 새우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도덕면 가아리 일원 6만6000㎡(2만평) 규모의 육상시설 하우스에 60억원을 투입해, 잔여부지 완공을 위해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중이고, 접안면 일원에는 26만4200㎡(8만평) 규모의 새로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흥이 친환경 양식새우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양식산업 발전은 물론, 향후 1·2차 가공산업 및 종량 물류센터 등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여수시 2023년 달빛갤러리 전시 작가 공모

31일까지 접수...대관료 면제·전시 홍보 지원 등 혜택

여수시가 2023년 달빛갤러리 전시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공모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작가로 활동 중인 자 또는 3년 이상 여수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자로, 보다 많은 작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2020년 1월 이후 달빛갤러리 전시에 참여한 자는 응모가 제한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역 예술인은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여수시 시청로1(학동), 문화예술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2023년 1월~12월 중 달빛갤러리 전시 기회가 주어지며, 대관료 면제와 전

시 홍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8개팀(개인·단체)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결과는 11월 20일 이전 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고소득 문화마을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달빛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 1일 개관한 달빛갤러리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으로, 지역미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해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5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구례동편소리축제' 3년만에 개최

13~16일 서시천 체육공원·구례5일시장 일원

동편제의 본향 구례에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접목한 '구례동편소리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근 산 아래 사람들'을 주제로 서시천 체육공원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구례동편소리축제는 동편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중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13일 '구례5일시장 거리예술공연'으로 시작한다. 구례5일시장의 번창을 위해 역병을 쫓는 연희그룹 연희의 벽사의식과 재수소망을 비는 축원 연희 공연부터 음악당 달다의 랄랄라쇼, 극단 즐겨찾기의 바가엔밴드 공연 등 새롭고 즐거운 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북측 입구 무대 앞에서 열린다. 14일은 양상봉 후오의 대취타를 시작으로 서시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개막제가 열린다. 특히 올해 개막제는 방수미 명창과 윤진철 명창 등 동편제 판소리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최예림, 한예종 안덕기 무용단, 김덕수, 이지혜, 민영치, 양상봉 시나위의 현대예술을 접목한 공연과 수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구례 문화예술인과 그 작품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보여줄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국악 인재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26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예선전'이 성진아트홀,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무관중 경연으로

치러진다. 오후 1시부터 읍면 농악단의 공연, 양혜인, 조선하, 강민지의 동편제 판소리, 전통무용, 퓨전국악 등 구례의 소리 공연으로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던 구례의 예술인들이 구례동편소리축제를 빛내기 위해 즐거운 불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젊은국악인&명인명장전'이 서시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명인명장전에서는 동편제 판소리의 왕기철 명창과 서편제 판소리의 엄경애 명창의 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층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 프로그램으로 강은일 해금 플러스 연주와 사회자 최재구의 퓨전 판소리, 전영랑의 소리 있다, 조주환의 국악 퍼포먼스, 이봉근 창작국악 등의 공연도 마련된다. 축제 마지막인 16일은 무관중으로 '제26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본선'과 시상식이 치러진다. 판소리 부문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 등을 수여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 할머니 초등생 학사복 입고 '김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찾아가는 문해교실' 졸업사진 촬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찾아가는 문해교실' 초등교육을 마친 어르신 64명을 대상으로 졸업사진 촬영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사진 촬영은 코로나19로 문해교실을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학사복을 입고 함께했다. 곡성군은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관내 65세 이상 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30개 마을에 성인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교실 및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중에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문해교육 졸업예정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해지원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해교육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초·중등 학교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순천시,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수퍼빈' 운영

순천시가 주요 환경 오염원인 투명페트병과 캔을 회수에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인공지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상품명 '수퍼빈')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 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회수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계로,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수퍼빈 앱에 회원 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활용품 개당 10포인트(10원)가 적립되며, 2000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수퍼빈 앱이나 누리집에서 현금으로 환전신청 할 수 있다. 회수기는 인공지능 센서를 기반으로 오염된 재활

용품은 투입구에 넣어도 회수되지 않고 반납되므로, 이용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행귀야 하며,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회수기에 투입해야 한다. 시는 AI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신규가입 혜택 및 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문화건강센터, 연향근린공원 등 체육시설과 공원 위주로 총 9곳에 16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과 분리배출 실천을 통한 순환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보성의 진수' 투어버스 신상품 14일 출시

물멍 바다멍 캠프닉·보성차밭 피크닉 코스 운영

보성군이 투어버스를 타고 보성의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새로운 여행상품 '보성의 진수' 투어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성의 진수는 보성의 생태 체험 프로그램인 '보성애 물들'을 주요관광지와 연계해 만든 여행상품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광주유스퀘어를 출발하는 '물멍 바다멍 캠프닉'(캠핑과 피크닉의 합성어)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

발하는 '보성차밭 피크닉' 코스로 운영된다. 물멍 바다멍 캠프닉 코스는 득량역 추억의 거리와 보성차밭을 거쳐 노을지는 울포해변에서 프라이빗한 캠핑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며 보성차밭 피크닉 코스는 보성차밭에서 감성 소풍 음식과 용품을 대여해 피크닉을 즐기는 체험상품이다. 상품 예약은 현재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